

# 미 상원 '北 비확산법' 만장일치 통과

미 상원은 25일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직후인 지난 14일 미 상원에 제출된 북한비확산법안의 상원 가결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미국측의 첫 번째 관련 입법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비확산법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서비스·기술이전 등 규제 안보리 결의 후 첫 입법조치...대북제재 힘 실릴 듯

사들이 외국인이나 회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확산법은 당초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만들어졌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북한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해 이날 통과됐으며, 하원에도 비슷한 법안

이 계류 중이다.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에는 지목된 개인에 대한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 금지조치 등도 포함돼 있다.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인과 국내 국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걸 보여줬다며 "우리는 김정일이 무기

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 물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권한 내의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비확산법이 상원에 상정된 지 10여일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와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 의회와 정부 내 협상파들의 주장과 입지가 약화되고 북한을 압박하는 또다른 입법조치와 정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헤즈볼라 거점지역 레바논 남부지역의 거리에서 한 레바논 여성이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 UN 건물도 폭격...단원 4명 사망

## 이란 총장 "의도적으로 공격 목표 삼아" 맹비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5일 레바논 유엔 감시단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날 레바논 남부지역을 공습해 유엔 감시단원 4명이 사망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다.

사망한 감시단원들은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중국, 핀란드 출신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레바논 고위 군관계자가 말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발로스 스트루거 대변인은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는 남부 도시 키암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감시단 건물이 폭격으로 파괴됐으며 이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트루거 대변인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유엔 감시단 건물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을 나타냈다.

로마를 방문 중인 아난 총장은 성명을 내고 "레바논 남부의 유엔 감시단 건물을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공격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여 충격을 받았으며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했다.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스라엘의 유엔 감시단 건물 폭격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유엔 요원의 희생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스라엘은 유엔 요원을 겨냥해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중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아랍-유럽 국제회의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베, 총재선거前 파벌 탈퇴

## "당내 폭넓은 지지로 총재 선거 출마"

도 파벌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모리파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내 최대 파벌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이 파벌에 속해 있다.

아베 장관이 파벌 탈퇴를 계획하는 것은 당내 폭넓은 지지를 얻기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장관 주변의 소장파들은 모리

파가 선거의 전면에 나설 경우 다른 파벌의 불만이 커져 오히려 지지율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당은 오는 28일부터 도쿄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권역에서 총재 선거 후보들이 나서 정책토론을 벌이는 '권역대회'를 시작한다. 사실상 총재선거 유세의 전초전이다. /연합뉴스

# '개고기 다큐...'

## 훗BBC4 30분간 방영

영국 디지털 TV 채널인 BBC 4가 25일 한국의 개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30분에 걸쳐 방영했다.

BBC 4는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위험지대 요리(Cooking in the Danger Zone)'라는 제목의 4부작 시리즈물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유럽인들이 혐오하는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다뤘다.

## 한국의 채식문화와 함께

## 부정적인 모습 주로 담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음식전문 작가인 스테판 게이츠는 개 농장, 보신탄 식당, 개 거래 시장 등을 둘러보고, 개고기 판매 단체를 방문하는 등 개고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게이츠는 시식용 개와 애완용 개는 다르며, 시식용 개는 가죽과 다름 바 없다는 개 주장 주인의 말을 들렀음으로써 한국측의 반박 논리를 다소 수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였다.

그는 개고기 문화와 반대점에 있는 절의 음식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채식문화와 함께 조명했다.

/연합뉴스

#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배치 어떨까"

## 라이스 美 국무 제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종식을 위해 최대 4만명에 이르는 2개 국제평화유지군을 레바논에 배치하는 안을 레바논측에 제시했다고 CNN이 25일 보도했다.

CNN은 라이스 장관이 전날 레바논을 전격 방문, 푸아드 사니오라 총리 등 레바논 관리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제안한 데 이어, 26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유럽의 외교장관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이-헤즈볼

라간 휴전후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남부 레바논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는 유엔의 지휘를 받는 터키와 이집트 병력을 1만명까지 배치시켜 이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것. 이어 최대 3만명까지의 국제평화유지군을 추가 투입, 레바논 정부와 남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바논측은 라이스의 제안에 반대한 나머지 이 계획의 상세한 내용들까지 유출하고 있다는 것.

소식통들은 라이스 장관의 제안이 '개요', 내지는 '실무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아무도 이에 동의한 사람이 없으며 제안이 실행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간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사태 관망? 건강 이상?' 김정일 은둔 사연 있나

## 미사일 발사 후 '사면초가' 정세 속

## 北 매체 22일째 무언급...궁금증 증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표동 2호 등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면초가'의 정세 속에서 장기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미사일 사태 이후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직전 새로 건설된 평양 대성타이어 공장을 현장지도차 방문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26일까지 22일째 북한 언론 등 대외 선전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긴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 지난주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단을 전원 평양으로 소집해 '해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해졌으나 이에 대한 보도도 나오지 않아 회의개최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아버지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12번째 기일인 지난 8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점쳐졌고, 지난 10~15일 북한을 방문한 후이람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친선대표단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은둔'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로 이어진 이후에도 추가 제재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표동 2호 발사 실패에 이어 '혈맹'인 중국과 껴여가는 외교관계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대북제재, 식량난에 걸친 폭우 피해 등 '사면초가' 정세를 관망하며 활로 모색에 부심하느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Possible?' featuring a stack of books and a desk. Text includes 'Do you think it is Possible?' and 'www.hanboGAGU.com'.

Advertisement for '사무용 가구의 모든 것' (All office furniture) featuring office desks, chairs, and tables. Text includes 'www.hanboGAGU.com' and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